

지증왕[智證王]

신라 발전의 발판을 마련한 마지막 마립간이자 최초의 신라 국왕

437년(눌지 마립간 21) ~ 514년(지증왕 15)



포항 냉수리 신라비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1 개요

지증왕(智證王, 437~514)은 신라 제22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500년~514년이다. 소지마립간(炤知麻立干, 재위 479~500)의 뒤를 이어 즉위하여 지방 통치 제도를 포함한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등, 신라가 중앙집권국가로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그의 재위 시에 신라(新羅)라는 국호를 확정하고 왕의 호칭이 마립간(麻立干)에서 왕으로 바뀌었는데, 당시 신라의 발전을 잘 보여주는 일이다.

2 가계와 즉위

지증왕은 437년(눌지마립간 21) 내물마립간(奈勿麻立干, 재위 356~402)의 손자이며 아들인 습보갈문왕(習寶葛文王)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 조생부인 김씨(鳥生夫人 金氏)는 눌지마립간(訥祗麻立干, 재위 417~458)의 딸이다. 지증(智證)이라는 이름은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하면 왕이 죽은 이후에 붙여진 시호(諡號)이다. 관련사료 하지만 그의 본명인 지도로(智度路)[혹은 지대로(智大路)나 지철로(智哲老)라 쓰기도 한다.]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름의 다른 표기로 여겨진다.

지증왕은 체격이 매우 건장하고 힘이 세었으며 담력이 컸다고 전한다. 왕비는 이찬(伊瀾) 등흔(登欣)의 딸인 연제부인 박씨(延帝夫人 朴氏)인데, 지증왕이 왕비를 맞이하는 과정에 대해서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한다. 왕이 즉위한 후 왕비를 구하였는데, 몸집이 너무 커 보통의 여자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에 삼도(三道)에 보내 왕비가 될 여인을 찾도록 하였다. 사신이 모량부(牟梁部)에 이르자 큰 나무 아래에서 개 두 마리가 북만한 크기의 똥을 양쪽에서 물고 다투는 것을 목격한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량부 사람들에게 물으니 모량부 상공(相公), 곧 이찬 박등흔의 딸이 눈 것이라 말하였다. 이에 그 집을 찾아가 보니, 그녀의 키가 7척 5촌(약 180cm) 정도이고 체격이 매우 커 왕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왕에게 보고하니, 왕이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왕후로 맞이하였다고 한다. 관련사료

왕비와의 사이에서 법흥왕(法興王, 재위 514~540), 입종갈문왕(立宗葛文王), 어사추여랑(於史鄒女郎) 등의 자식을 두었다. 그런데 위의 이야기에서 왕비는 지증왕이 즉위한 이후에 맞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증왕이 15년간 왕위에 있었기에, 그 장남인 법흥왕은 즉위시 16살을 넘을 수 없는 어린 나이였을 것이다. 그런데 법흥왕이 즉위시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